

# '보는 책' 시대의 본격 선언

## 한꺼번에 36종 선보인 '빛깔있는 책들'...우리문화 컬러에 담아

'빛깔있는 책들'이라는 우리말 이름의 장기 시리즈물이 새롭게 탄생했다. 선명한 컬러사진과 평이한 문장으로 우리문화의 각 분야를 소개한 이 시리즈는, 본격적으로 '보는 책'의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만만한 기획이어서 더욱 각별한 시선을 끌고 있다.

### 일년에 50권씩 500권 발행이 목표

옥색과 진홍빛깔로 표지를 산뜻하게 장식한 이 시리즈는 대원사(대표 차민도)와 김형윤편집회사가 공동개발, 2년간의 준비과정 끝에 우선 첫 결실로 1차분 36종을 선보였다. 일년에 50권씩 10년 동안 500권을 발행하겠다는 장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번에는 민속문화, 고미술, 불교문화 등 6개 분야의 책들을 소개했지만 앞으로는 예술과 과학분야 등으로 그 영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책들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깊은화」(이병선) 「유기」(홍정실) 「민속놀이」(김광연) 「팔도 굿」(황루시) 등 민속부문이 8종, 「한국의 정자」(박언곤) 「문방사우」(이경모) 「고인쇄」(전체봉) 등 고미술이 6종, 「석불」(진홍섭) 「범종」(이호관) 「석탑」(정영호) 등 불교문화가 7종이며, 「전통음식」(한복진) 「동양관가꾸기」(윤국병) 「요가」(정태혁) 등 음식·생활문화 부문이 15종으로 모두 36종이다. 각 분야는 전문필자들과 김수남·김대벽·안장현씨 등 대표적인 사진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책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이 지닌 가장 큰 개성은 무엇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선명한 사진에 담아 전달함으로써 '책보는' 재미와 함께 지식욕까지 충족시켜 준다는데 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컬러문고의 선언'이기도 한데, 김형윤씨는 "최근 문고본이 퇴조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내용과 형식에 커다란 변화가 요구된다. 이 기획물은 새로운 문고형태에 독자들의 변화된 독서습관을 수렴,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대중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문고의 제2시대'를 열고자 시도된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 호이쿠社의 경우 「컬러북스」를 이미 1960년대에 시도했음을 예로 들면서 이시리즈가 때늦은 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2년간의 준비과정은 면밀히 진행해, 비공식적인 편집자문위원회를 통해 진홍섭·신영훈·이정석씨 등에게 자문을 받아 대강의 목록을 추렸고, 다시 구체적인 107항목을 설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설정된 항목 가운데는 「농기구」 「단청」 「화폐」 등 구체적인 부분과 함께 건강식품, 한국의 자연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어 그 폭을 짐작케 한다. 발간의 우선순위는 독자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작년 5월말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거쳤다. 조사결과 불상, 인테리어, 한국의 산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관심도의 흐름은 현대문화, 전통민속, 불교문화의 순서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에 소개된 항목들은 바로 독자들의 이러한 관심도를 크게 반영한 것이라고.

### 윤문·사진효과 등 제작상 까다로움도 많아

각권은 글과 사진이 각각 동등한 비율로 편집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짜기에도 숨은 어려움이 많은 듯했다.朴贊中편집장은 "우선 원고에 대한 세심한 윤문과정에 문제가 따랐다. 전문적인 내용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엮기 위해 문장을 다듬다보면 저자와의 부분적인 마찰이 반드시 있다. 또 '보는 책'을 표방한 만큼 사진의 비중이 큰데, 사진자료의 확보도 쉽지 않거니와 만족스런 사진효과를 위해 몇번이나 재분해를 하곤 했다"고 제작의 까다로움을 말했다.

시행착오도 있어서 4·6판으로 진행하다가 시각효과를 고려하느라 다시 지금의 국18절판으로 바꾸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벽은 제작비 부담인데, 이번에 나온 36권의 개발비만 5억원이 들어 앞으로 종당 8,000부(권당 정가 2,800원)가 팔려야 손익분기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깔있는 책들'을 더욱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 제작비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방침이다.

막상 그같은 마음가짐을 고양시켜준 것은 '빛깔있는 책들'에 보이는 독자들의 즉각적인 관심 덕분이기도 하다. 격려전화와 우편주문이 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은 어떠냐고 제의하는 필자도 나서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용기를 얻은

20여명의 편집진은 올해 안에 마저 나올 14종과 내년에 만들 50종의 준비작업만으로도 이 여름이 훌쩍 지나가버릴 것만 같았다. 현재 「제주민속 마을」(김영돈) 「사리」(김희경) 「한국의 배」(이원식) 등이 각각 교열중이거나 사진작업중. 또 '빛깔있는 책들'이 비장의 무기로 준비중인 '심층탐구'시리즈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인데, 「선」 「꿈」 「죽음의 저편」 「점성술」 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정신문화 분야가 기대된다.

이 시리즈물에 대한 김형윤씨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 확고한 듯하다. "당분간 제작상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일년에 50권씩 내겠다는 사회적인 약속은 지킬 것이며, 멀지않아 우리나라도 시각출판의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니만큼 보다 알찬 내용으로 대중에게 꼭 필요한 책을 꾸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마도 이제 '빛깔있는 책들'을 시작으로 독자들은 더욱 다양한 빛깔을 지닌 출판물들을 접하게 될 모양이다. —김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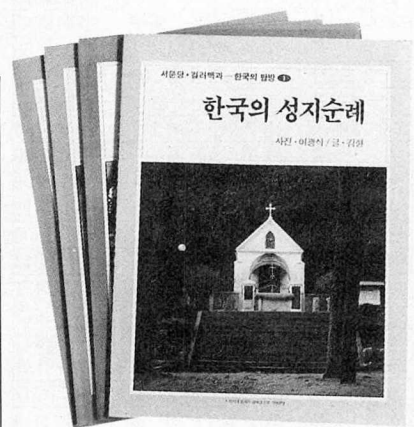
## 생활서 예술까지 컬러화보 엮어

### 「컬러백과」시리즈 14종...서문당서 선보여

생활과 취미에서부터 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에 걸친 지식을 내용에 따라 나눠 엮은 「컬러백과」시리즈가 서문당에서 기획, 발간됐다. 서양의 미술, 중국의 미술, 생활편람, 한국의 탐방 등 6개 분야로 나눠 계속 펴낼 예정인데, 우선 14권이 처음으로 선보였다.

「피카소」 「샤갈」 「반고호」 등 서양의 미술이 10종, 「漢·唐의 회화」 「五代·宋의 회화」 등 중국의 미술편이 2종, 그리고 생활편람편의 「꽃사전」, 한국의 탐방편의 「한국의 성지순례」가 각각 한권씩 해서 모두 14종이다.

특히 「꽃사전」(崔光烈)은 200여종이 넘는 꽃의 종류와 특징을 사진으로 설명하고 원예용어집과 약용식물 해설까지 실어 쓰임새를 더욱 높였고, 「한국의 성지순례」(이광식·김향)는 박해와 순교의 사연이 얽힌 전국 천주교 순교지를 현장취재해 엮은 것이어서 기획



의도가 돋보인다.

올해 안에 모두 60권을 낼 목표로 「한국의 야생화」 「한국의 민물고기」 「고구려 고분벽화」 「한강문화」 「한국의 국보」 등이 지금 제작중이며, 이밖에도 인간문화재, 세시풍속, 한국의 민화, 고건축 등 사진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종목을 더욱 넓혀 권수의 제한없이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다.

서문당 / A4 / 50면 / 3000원